

## 아비가일의 선택

신학박사 조 덕운

[사무엘상 25: 23-35]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는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몸을 구부려 땅에 대고 24 그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이 불법을 내게로 곧 내게로 돌리시고 원하오니 주의 여종이 주께서 듣는 데서 말하게 하시며 주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 원하오니 내 주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나이다.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하오나 주의 여종인 나는 내 주께서 보내신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주}께서 살아 계심과 또 내 주의 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 주께서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주의 손으로 친히 원수 갚으시는 것을 {주}께서 막으셨사오니 이제 내 주의 원수들과 또 내 주께 악을 꾀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7 이제 주의 여종이 이 복된 선물을 내 주께 가져왔사오니 내 주를 따르는 청년들에게 그것을 주게 하시고 28 원하건대 주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또 내 주의 평생 동안 내 주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다.

29 그럼에도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가서 내 주의 혼을 찾으려 하나 내 주의 혼은 {주} 곧 내 주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 묶음으로 묶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혼은 그분께서 무릿매의 중간에서 던지듯 던지시리이다. 30 {주}께서 내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임명하셨을 때에 31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셨다든지 혹은 내 주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셨다든지 하는 이것이 내 주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리이다. 다만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에 내 주의 여종을 기억하소서, 하니라.

32 ¶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이 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르다. 33 또 네 권고가 복이 있으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날 내가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34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으로 네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동틀 때에 담에다 소변보는 자가 하나도 나발에게 남아 있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35 이에 다윗이 그녀가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고 그녀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보라, 내가 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너를 받아들였노라, 하니라.

### 1. 상황

유대 땅 마온이라는 곳에 양 3 천마리와 염소 천마리를 소유한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용모가 준수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그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자이었다. 어느 날 나발이 자신의 양들의 털을 깎는 날, 즉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수확의 날과 같이 큰 수입이 생기는 중요한 날에 술에 취하여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 때에 다윗은 사울왕의 추적을 피하여 남부 유대의 험한 산골 지역에서 400 여명의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고난의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의 목축업을 위한 보호막을 마련하여 그에게 선하게 대하였고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던 터이었다. 다윗은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어 그의 양털 수확일에 마련한 풍성한 음식 중 얼마를 도와 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런데 나발은 도움을 주기는 커녕 다윗을 모욕하였고, 그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쫓아 버렸다.

나발의 고약한 대접에 화가 난 다윗은 나발의 집안을 멸절해 버리기로 작정하여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산처를 떠나서 나발의 동네로 출발하였다. 나발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술취해 있었고, 그 부하중 한명이 이 긴박한 상황을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보고하였다.

## 2. 아비가일의 선택

아비가일은 남편이 평소에 자신의 부에 대한 자만심과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을 천시하는 못된 버릇을 잘 알고 있었던 터이라, 이 상황을 빨리 이해하고 임박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다행히도 아비가일은 다윗이 남부 유대 광야의 험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사울의 다윗에 대한 부당한 질투와 그 때문에 다윗이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추적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는 잘 알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대 사람들이 사울왕 몰래 힘들게 그를 돕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아비가일에게는 두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첫째는 부자 목축업자의 아내인 순종형 이스라엘 주부로서 남편의 선택을 존중하여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남편 나발이 평소에 거만하고 어리석은 점이 있으나, 그는 갈렙 집안 사람인 남자이었으므로 집안에서 가장인 그를 존중함은 당연한 히브리 전통이었다. 나발의 조상 갈렙은 모세와 함께 40 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웠고, 자신의 부족을 위한 유업의 땅을 분할 받아 거기에 정착하였으므로, 이제 그의 후손들이 이러한 훌륭한 조상의 유업을 물려받아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비가일의 다른 선택지는 다윗의 나발에 대한 분노를 해소시킴으로써 다가오는 자신의 집안의 몰락과 재앙을 예방하는 것이었다. 다윗은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용맹스런 젊은 장군이였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술에 취하여 그와 이성적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윗이 필히 가할 분노의 폭력 행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상의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의 긴박성에 비추어 불가능한 일임을 아비가엘은 잘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엘은 우선 다윗과 그의 무리가 산중에서 생존을 위해 도움이 될 식료품들을 급히 준비하도록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다윗의 사람들은 열악한 산중 생활에서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험악한 생활을 하고 있을 터이었다. 그래서 빵 200 덩어리, 포도주 가방 2 개, 먹도록 준비된 양 다섯 마리, 볶은 곡식 다섯말, 건포도 100 묶음, 그리고 마른 무화과 200 덩어리를 묶어 당나귀에 실어서 다윗의 분노를 해소하도록 다윗의 처소로 먼저 보내고, 아비가엘은 그 뒤를 따랐다.

산에서 나발의 집을 향하여 내려오던 다윗과 아비가엘의 때가 중도에서 만나게 되었고,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온 아비가엘은 당나귀에서 내려 땅바닥에 머리를 숙여 절하였는데, 이는 부자 목축업자의 부인이 취할만한 행동과는 거리가 먼 겸손의 행위이었다. 다윗의 진노를 식이기 위하여 한 아비가엘의 말을 읽으면 얼마나 이 여인이 현명한 사람인가 감탄하게 된다. 아비가엘이 다윗에게 드린 말씀은 다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로, 아비가엘은 나발의 무례함에 대하여 겸손히 용서를 빌었다.**

아비가엘은 남편 나발이 다윗이 그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배풀었던 친절함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하였던 경력과 명예를 모멸하는 무례를 저질렀던 잘못에 대하여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허리를 굽혀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였다. “내 주여, 이 불법을 주의 여종에게로 돌리소서”라고 간청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때에 바로 이러한 겸손한 심령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 아비가엘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 하는 심령을 갖고 있었으므로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다윗 앞에서 이런 겸허한 태도를 보이도록 가르친 것이었다고 믿는다.

*[잠언 15:33]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 **둘째로, 아비가엘은 다윗의 명예를 선포하였다.**

아비가엘은 28 절에 훌륭하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의 명예를 높히 인정하였다. 사울왕으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음에 따라 자신의 백성인 유다 족속조차 그를 천시하고 적대시 하던 중이었으나, 아비가엘은 다윗이 나라를 위하여 큰 공을 세웠던 명예로운 군인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래에 크게 높이실 분임을 인정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에 위로를 주었다.

*[25:28] 원하건대 주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또 내 주의 평생 동안 내 주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으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였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 중의 한 분이였다. 마리아는 고귀한 향유 한 병을 예수님께서 고난의 날을 당하시기 불과 며칠 전에 그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므로 그 향유로 미리 그분의 몸을 곧 다가올 매장을 위해 준비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의 그런 희생과 헌납의 행위를 칭찬하시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아비가일이 자신을 높히어 말하고 헌납의 선물을 가져온 선행을 높히 평가하였다.

*[요한 12:7] 그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 두어라. 나를 장사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셋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상기시켰다.**

다음으로, 아비가일은 29 절에 아름답게 표현된 것처럼, 수년전 어린 청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돌맹이 하나를 물매로 힘껏 던져서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군대에 큰 승리를 안겼던 사실을 상기하는 표현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높이시어 다시 한번 그의 원수들을 과거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무릿매로 내어 던질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다.

*[25:29] 그럼에도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가서 내 주의 혼을 찾으려 하나 내 주의 혼은 {주} 곧 내 주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 묶음으로 묶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혼은 그분께서 무릿매의 중간에서 던지듯 던지시리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그가 당면한 적의 장수는 체격이나 경력이나 여러 모로 보아 다윗이 상대하기에 매우 벅찬 상대이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돌 무릿매를 힘껏 던져 승리했던 것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 묶음으로” 묶여 있으므로 온전히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며 반드시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임을 선언하였으니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격려를 받았을 것인가!

*[사무엘상 17: 45-47]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46 이날 주께서 너를 내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게서 네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땅이 알게 하겠고, 47 또 주께서 같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은 수년전 엘라 계곡에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대적하여 그를 쓰러뜨렸고, 그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혔던 승리를 생각하게 하였다. 그리고 비록 사울 왕이 그의 목숨을 노려 추적하고 있으나 그의 목숨은 하나님의 “생명 묶음”에 단단히 묶여 있으니 안전할 것이며, 반드시 다시 한번 승리할 것이라고 다윗을 크게 격려한 것이다. 이 격려의 말로써 이날 아비가일은 다윗과 심정적 동지가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살육의 계획을 버리도록 권고하였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터인데 그때에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살육의 계획을 버리라고 권고하였다. 앞서 다윗의 마음에 격려와 감동을 준 후에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충고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 파괴와 살육의 행위가 비록 지금은 온전히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도, 미래에 당신이 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서게 되었을 때에 당신이 크게 후회할 것인데, 어찌 그런 일을 하여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려 하나요? 이 살육의 계획을 버리고 이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수하심에 맡기십시오.” 아비가일의 현명한 권고는 다윗의 분함을 녹이고 복수의 감정이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한 여인의 겸손한 권고의 말에 다윗은 자신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 안식과 평안을 찾기로 한 것이니, 우리도 전쟁과 불화 대신에 또는 복수를 꼭 얻고야 말겠다는 다급한 감정을 버리고 화평을 도모하는 Peace Maker 가 되어야 하겠다.

### 3. 다윗의 반응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풍성한 식물을 받아 들이고 또한 그녀의 권고에 따라서 나발에게 행하려 작정했던 폭력 행사를 취소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현명한 권고를 인하여 그녀를 축복하였다.

*[25:32-33]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이 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33 또 네 권고가 복이 있으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날 내가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결국 다윗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 복수를 하는 것보다 분한 마음으로 복수하고자 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옴이 진리이다. 다윗은 폭력을 자제하여 아비가일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었다. 간접적으로 나발도 아비가일 덕택에 다윗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은혜의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게 되는 자비이다. 나발은 다윗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어리석은 죄인이었으나, 의롭고 현명한 아내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다. 아비가일의 집안은 아비가일이 표현한 다윗에 대한 믿음과 겸손한 회개로 인하여 왕의 은혜를 입어 임박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것은 신약시대에 죄인이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로마서 5:1-2]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데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 4. 하나님이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있는 동기와 생각까지도 모두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대언자 사무엘을 시켜서 어린 다윗을 차기 왕으로 기름부어 인치셨으므로 다윗의 생명과 안녕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었다. 사울왕이 통제하지 못하는 질투의 악감정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어려운 경험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봄에 대하여 시편 23 편에 잘 표현하였다.

*[시편 23:4]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가일의 간절한 권고를 받아들여 자신이 포기한 나발을 치려는 복수의 계획이 이제 하나님의 손 안으로 옮겨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마음을 모두 보고 계셨고, 아비가일이 다윗과 만났던 날부터 십여일 후에 나발의 생명을 가두시었다.

*[삼상 25:37-38] 그러나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뒤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고하매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고, 38 열흘쯤 뒤에 주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게되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도록 사람을 보내 청혼하였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여 자신의 부유한 처소를 떠나 다윗의 산중 캠프로 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제 아비가일의 부유한 소유물이 사울왕이 죽기까지 다윗과 그 무리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충분한 보급 채널이 되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기에 다윗을 돌보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방법이였다. 시편 23 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수의 면전에서 다윗에게 식탁을 마련하시게 되었다.

[시편 23: 5-6]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 5. 적용

아비가일은 영민함과 겸손함으로 다윗에게 간청함을 통하여 자신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이 다윗을 모멸했던 일로 그 일가에 닥쳐올 복수의 재앙을 모면하게 하였다. 그녀는 적시에 충분한 선물을 가지고 복수의 계획을 실행하러 산에서 내려오던 다윗을 대하여 나발을 향한 그의 복수의 계획을 취소하도록 설득하여 자신의 일가족을 위하여 다윗의 자비를 획득하였다. 그녀의 현명한 행동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현명한 아내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울의 적대적 추적을 피하여 산중에서 고난의 생활을 하던 다윗과 그 추종자 그룹에게 상당한 공급의 원천을 제공하는 길을 열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련하심은 아비가일의 겸양과 현명한 조치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겸손하게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이용하여 더 큰 일을 하실 기회가 열리게 될 수 있음을 본다.

사무엘상의 나머지 장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수천마리의 양과 염소 떼를 소유한 부자 마나님인 아비가일이 자신의 안락한 처소가 있는 갈멜 지방을 떠나서 다윗의 아내로서 그와 함께 정처없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여행길에 그와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과연 무엇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비가일로 하여금 그러한 비이성적인 삶의 선택을 하도록 그녀를 설득하였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사도가 되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잘나가던 바리새 유망주이었던 사울이 자신의 과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방랑 전도자의 길을 택하였던 선택을 생각하고 이를 아비가일의 선택과 대조해 본다. 아비가일은 머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만드실 계획을 믿어서, 왕되실 다윗의 신부가 되는 선택을 주저함 없이 하였을 것으로 믿는다.

[빌립보서 3: 7-9]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8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함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비가일은 목축업을 하는 부자 마나님의 위치보다 왕이 되실 다윗의 신부의 자리를 훨씬 더 소중한 자리로 여기고, 하나님이 택하신 용맹한 다윗 장군의 아내 됨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우리도 왕중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특권을 이 세상이 주는 어느 자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잠시동안 불안정하고 위험한 나그네의 생활을 기꺼이 택하는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권면한다.

마라나타!